

금융교육 강화 방안

2015. 10. 15.

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

목 차

I. 추진 배경	1
II. 현황 및 문제점	2
III. 주요내용	4
1. 추진전략	5
가.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금융교육 대폭 확대	5
나. ‘생활중심 교육’ 강화를 통한 금융행위·태도 역량 강화	6
<참고> 금융교육 국가전략 해외사례	7
2. 5대 핵심 추진과제	8
가. 생애주기, 취약계층 別 맞춤형 교육 강화	8
나. 교육과정개편, ‘1사 1교’ 등을 통한 학교교육 강화	10
다. 체험형 교육 등 ‘재미있는 금융’ 교육 확대	12
라. 강사인증제 등 공급역량 강화 및 교육 전달체계 다양화	13
마. 인터넷 등 대중매체와 캠페인을 활용한 교육·홍보	15
3. 추진체계 정비	16
가. 민간부문의 금융교육 역할 확대 등 민관협력 강화	16
나. 금융교육협의회의 확대·개편 및 지역네트워크 확대·기능강화	17
IV. 향후일정	19
<참고> 금융교육현황	21

I. 추진 배경

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
 - 미국, 영국 등에서는 정부 주도로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, 생애교육 차원에서 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를 추진
 - * OECD는 금융소비자보호 상위원칙(10개 원칙 중 하나가 금융교육)을 통해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선언('11.10월)했으며,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
- 우리나라에서도 그간 금융위·원, 금융회사, 금융협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소비자의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한 금융교육을 수행
 - * 금감원은 '02년~'14년 기간 중 초·중·고교생 111만여명을 비롯하여 약 160만명에 대해 금융교육을 실시
 - 직접적인 금융교육 이외에도 강사 양성·연수, 교재발간 등 금융교육 전반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
- 다만, 아직까지는 금융교육 공급이 절대적으로 충분치 못한 상황이며, 최근 금융교육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범정부차원의 협업 필요성도 대두
 - 금융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등 수요분석이 미흡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 설계에 한계가 있었으며,
 - 교과과정 개편, 고령화 등 사회경제환경 변화, 금융상품 복잡 다기화 등에 따른 금융교육 수요도 증가

⇒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 및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금번 “금융교육 강화 방안”을 마련

II. 현황 및 문제점

1 금융교육 기회 절대 부족으로 인한 국민 체감도 미흡

- '14년 중 금감원을 비롯한 71개 금융교육 실시기관*에서 청소년, 성인 등 약 160만명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했으나,
 - * 신복위,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등 유관기관 14개사, 금융회사 56개사
- 교육 필요성에 비해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에는 교육기회가 부족
 - * 초·중·고교생 중 교육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각각 49.7%, 53.3%, 69.7%('15.8월 실태조사)
- 교육대상은 많아 보이지만 대부분의 금융교육이 일회성에 그쳐 효과적인 교육이 어렵고 '보여주기식'이라는 비판도 상당
- 금융소비자는 금융교육 실시 여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
 - * 한국은행, 금감원을 제외한 18개 기관 각각의 금융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한 교사 비율이 최대 약 80%에 육박('15.8월 실태조사)

⇒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효과 제고

2 효율적 금융교육 지원을 위한 인프라 부족

- 다양한 생애주기별 교육교재 발간 및 교육을 실시해 왔지만,
 - 대부분 집합교육이 용이한 어린이, 청소년, 군인 대상 교육에 집중되었고 금융취약계층·교사 등에 대한 교육은 부족
 - * 초·중·고교생을 위한 교육 콘텐츠가 201종인 반면, 교사와 금융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는 31종에 불과
- 금융교육이 지식전달에 치우쳐 있어 어려운 금융용어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쉽게 금융에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
 - * 학생들은 난해한 금융 내용·용어로 인해 금융에 접근하기 어려워함

- PPT, 교재 등 강의형 금융교육에 필요한 콘텐츠는 다양한 반면,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은 다소 부족

- 한편, 금융교육 강사는 표면적으로 많아 보이나 실제 강의 경력·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강사는 부족

* 금융교육을 전업으로 하는 강사는 85명으로, 전체 금융강사(1,743명)의 4.8% 수준

- 강사양성 연수 프로그램이 다양한 기관에 마련되어 있지만 내실이 부족하고 사후평가도 미흡하여 전문성 제고 곤란

* '14년 기준 총 22개 금융교육 실시기관에서 연 1~2회, 1일 연수 운영 중

⇒ 금융교육 프로그램 및 금융강사 등 금융교육 인프라를 강화하여 금융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

3 효과적 금융교육을 위한 민간과의 협력 부족

- 그간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수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금융교육을 진행해 왔으나,

- 금융당국과 민간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촘촘하고 효과적인 금융교육이 부족했으며,

* 금융교육 실시기관 간 공유채널이 부족하여 교육의 중복 발생 우려

- 금감원 등 공적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회사 등 민간부문에서의 역할이 다소 미흡

* 금융협회 중 생보협회 및 금투협회를 제외한 금융협회의 금융교육 실적 저조

* '14년 중 금융회사가 전체 금융교육 실시기관의 약 80%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금융교육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6%에 불과

⇒ 민간과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하고, 민간부문의 비중을 확대하여 금융교육 전달경로 다양화

III. 주요내용

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 및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

< 추진 전략 : 소비자 중심의 금융교육 대폭 강화 >

▶ 금융교육 기회 대폭 확대
→ 국민체감도 향상

▶ '지식'에서 '생활' 중심 교육
→ 금융교육 효과 제고

5대 핵심 추진과제

금융교육
인프라
확충

생애주기, 취약계층 별 '맞춤형 교육' 강화

교육과정 개편, '1사 1교' 등을 통한 학교교육 강화

체험형 교육 등 '재미있는 금융' 교육 확대

금융교육
공급역량
강화

강사인증제 등 공급역량 강화 및 전달체계 다양화

인터넷 등 대중매체와 캠페인을 활용한 교육홍보

추진체계
정비

민간부문의 금융교육 역할 확대 등 민관 협력 강화

금융교육협의회 확대·개편 및 지역네트워크 확대·기능강화

1 추진전략 : 소비자 중심의 금융교육 대폭 강화

가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금융교육기회 대폭 확대

◆ 금융교육 대상, 횟수를 '14년 대비 최대 '16년 125%, '20년 200%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교육 주체·방법도 다양화

□ 금융교육 관련 대상, 실시횟수 지속적으로 대폭 확대

○ (대상) 연 160만명('14년) → 연 200만명('16년) → 연 300만명('20년)

- 상대적으로 교육이 부족했던 일반인, 대학생 대상 교육을 확대하고,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 강화

* (교육 비중) ① 대학생 : 2.2%('14년) → 4%('16년) → 8%('20년)

② 일반인 : 7.9%('14년) → 10%('16년) → 15%('20년)

* 대부분의 금융교육이 초·중·고교 교육에 집중('14년 전체의 약 60%)

○ (횟수) 연 3.3만회('14년) → 연 4.1만회('16년) → 연 6.5만회('20년)

- 정기적·지속적 교육을 통한 금융교육 효과도 제고

* 예시) '1사 1교'를 통해 학교당 최소 학기당 2회 교육 실시

□ 교육 주체·방법 다양화를 통한 금융교육의 체감도 제고

○ (주체) 증권·보험·카드사 등으로 교육 주체를 다양화하고 개별 업권의 특성에 맞는 금융교육 강화

* 증권·보험·카드사 교육 비중 확대(5%('14년) → 7%('16년) → 10%('20년))

* 대부분의 금융교육이 금감원·신복위 등 교육기관에 집중('14년 전체의 약 65%)되며, 금융회사 금융교육도 은행(약 30%)에 집중

※ 개별 금융회사 교육시에도 원칙적으로 금융전반 교육 실시

○ (방법) '강의형 금융교육'(교재, PPT 등) → '체험형 교육'(만화, 게임 등)으로 교육 방법 개편

* 체험형교육 콘텐츠 비중 대폭확대(22%('14년) → 30%('16년) → 50%('20년))

* 대부분의 금융교육이 PPT, 교재, 동영상 등 강의형 금융교육에 집중('14년 금융교육 콘텐츠에서 70% 이상 차지)

나 금융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'생활중심' 교육 강화

◆ '지식중심'에서 '생활중심'으로 교육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

□ 소비자의 금융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저축·소비·재무설계 등 금융행위·태도* 역량 제고를 위한 '생활중심' 교육 강화

* (행위) 금융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동방식(금융상품 선택방법 등)
(태도) 금융생활 관련 가치관·선호(현재소비 및 신용거래 선호 여부 등)

※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이해력 항목 중 금융지식(75.6)에 비해 금융행위(59.0)·태도(61.0)는 현저히 낮은 수준('14.12월, 금감원 금융이해력 조사)

○ (내용) 우리나라 금융현실, 시대적 트렌드 등 다양한 금융변수를 고려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내용 마련(→ 교육 표준안 반영)

※ 교육내용(예시)

○ (소득·지출·저축) 예산관리, 비상지출대비, 돈의 가치, 신용구매 등

○ (재무설계) 자산운용방법, 은퇴·노후 준비(퇴직연금 등) 방법 등

○ (금융거래) 금융투자상품 위험, 개인신용등급 관리의 중요성, 금융사기 대처방법, 금융상품 선택방법, 소비자 보호 등

- 원칙적으로 생애주기에 따라 교육내용을 차별화

○ (방법) 소비자가 가장 쉽고 편리하게 금융소양을 체화할 수 있도록 체험·사례 중심의 '재미있는 금융' 교육 강화

- 일선 학교의 금융체험활동(금융동아리 등)을 적극 지원하고, 체험공간·컨텐츠(게임, 뮤지컬 등) 및 사례중심의 교재 대폭 확대

※ 영국, 미국, 호주 등에서도 금융교육 국가전략의 목표를 '금융 행동 개선' 중심으로 설정·실행 중 (별첨 참고)

- ① (영국) 금융행동 개선 정책(1모형: 정보제공·금융교육·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금융지식, 기술, 태도 등에 영향을 주어 금융마인드에 변화를 주고 금융행동을 개선 / 2모형: 정보·교육 등이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금융환경의 개선을 통한 금융행동 개선)

※ MINDSPACE (상황적이고 맥락적인 부분이 사람들의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)

- Messenger : 사람들은 정보제공자에게 큰 영향을 받는다
- Incentives : 인센티브는 특정 행동을 취할 좋은 이유를 제공한다
- Norms :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
- Defaults : 사람들은 주어진 선택지에 따른다
- Salience : 사람들은 새롭거나 단순한 것에 끌리는 경향이 있다
- Priming : 사람들은 잠재의식에 대한 암시에 영향을 받는다(단어, 그림 등)
- Affect : 사람들은 이성보다 감정에 따라 행동할 수도 있다
- Commitment : 사람들은 스스로의 말에 맞게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
- Ego : 사람들은 스스로를 기분 좋게 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

- ② (미국) 인지발달이론에 따라 금융교육으로 미래의 금융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초등교육 기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

- ③ (호주) 금융지식만으로는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역부족, 국가전략의 궁극적 목표는 금융행동의 개선이므로 교육·정보 제공을 넘어선 다양한 방안 마련

- 쌍방향·행동지향적 도구 : 금융상담 웹사이트 MoneySmart, 개인별 금융상담 제공*

* 예시) 예산세우기, 저축목표설정 계산기, 모기지 계산기, 은퇴계획, 재무진단 등

- 규제 : 금융상품 광고 규제 및 모니터링, 복잡한 특정 금융상품의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한 판매제한 검토

가 생애주기, 취약계층 별 맞춤형 교육 강화

□ (생애주기별) 전 생애에 걸친 '맞춤형 평생금융교육' 추진

- 실생활에 유용한 일반 금융소양정보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 커리큘럼 및 교재를 지속 고도화

- 보다 합리적인 생애주기 구분을 통해 맞춤형 교육의 효과 제고

* (현행) 미혼기, 신혼기, 자녀출산 및 양육기, 자녀학령기, 자녀성년기, 자녀독립·은퇴기
→ (개선안) 교육의 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세분화 또는 간소화

- 금감원 초·중·고교 표준안을 정비('16년)하고, 경제흐름·변화 등을 반영하여 생애주기별 표준안*을 지속 개정

* (현행) 금감원에서 초중고('11년), 생애주기별('14년) 표준안을 마련
→ (개선안)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례중심형 생애주기별 표준안 지속 마련·정비

- 표준안에 따라 생애주기별 특성, 시대적 트렌드(예: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연금의 중요성 포함) 등을 반영하여 교재도 정비

※ 금융교육 주요 내용(예시)

□ 생애주기별 특성 및 시대적 트렌드(예: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연금의 중요성, 금융소비자의 선택에 따른 책임성) 등 반영

* 신용관리의 필요성, 자산운용방법, 금융상품에 대한 손쉬운 소개 등 포함

- (미혼기) 학자금 대출 관리, 결혼자금 저축·투자방법, 미취업에 따른 소득 위험관리 등
- (신혼기) 대출상환관리, 주택자금 마련 저축·투자방법, 부부 건강 보험 등
- (자녀출산·양육기)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따른 지출(교육비 등)예산 수립 등
- (자녀성년기) 퇴직금 운용, 자녀 결혼자금 포트폴리오, 조기퇴직시 소득 위험관리 등
- (자녀독립·은퇴기) 상속설계, 장수·건강위험에 따른 위험관리, 은퇴자산 운용 방법 등

- 기재부, 고용부, 교육부는 경제·직장(은퇴자)·학교 교육 등에 동 교재가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 강구

○ 표준안 및 교재 등은 배포 범위 확대

* (현행) 전국 국공립도서관, 공공기관, 여성단체 등 → (개선안) 고용복지+센터, 서민금융상담센터 등 취약계층 주요 방문지 등으로 배포 확대

※ 금융회사 등 개별금융교육기관 교재도 표준안에 부합되도록 적극 안내·지도할 예정

□ (취약계층별) 사각지대 발생 방지를 위해 계층별 금융교육 실시 현황을 파악 후 미진한 분야 등을 대상으로 집중교육

* 새터민, 다문화가족의 금융이해력은 일반성인보다 저조(새터민 49.1, 다문화가족 51.1, 일반성인 66.5, '14년 금감원 실시)

○ 취약계층별 특성에 따른 전략적 교육 및 교재 개발

* (현행) 취약계층별 특성이 반영된 표준안 부재(1개의 교재를 가공하여 교육 중) → (개선안) 금융이해력이 가장 낮은 새터민, 다문화 가정 대상 교안을 우선 개발(외국어도도 집필)하고, 점진적으로 노인(노인용 금융교육 동영상 제작 및 노인정 배포), 장애인(시각장애인 대상 오디오북 제작) 등으로 대상 확대

-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실시기관* 및 콘텐츠**도 대폭 확대

* (현행) 금감원, 신복위,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등 8개 기관 → (개선안) 금융협회·회사를 추가하여 20개 기관('16년) → 50개 기관('20년)으로 확대

** (현행) 노년층 등 대상 총 21개 콘텐츠 → (개선안) 교육대상 및 콘텐츠(30개('16년) → 50개('20년)) 지속 확대

○ 시간·이동상의 제약 등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울 수 있는 취약계층의 특성을 감안하여 “찾아가는 서비스”도 지속 확대·제공

- 지역협의회 및 지자체(사회복지사 등 활용) 등과 적극 연계

○ 복지부, 여가부 등은 다문화가족센터, 여성인력개발센터, 노인복지회관(노후준비센터 포함) 등과 연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

- 사회복지사와 통번역지원사(다문화가족 대상)의 경우 보수교육 과정에 금융특강 편성을 정례화하고, 실생활 사례 중심으로 강의

* 통·번역지원사 양성과정에도 금융교육 신규 편입

나 교육과정 개편, '1사 1교' 등을 통한 학교 교육 강화

□ 초·중·고 교과과정 내 금융관련 내용 확대를 지속 추진

* (해외사례) 미국은 고교 금융과목을 17개 州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 영국은 11~16세 학생에 대해 학교 금융교육을 의무화

○ 국어, 영어, 수학 등 필수 교과목과 금융을 접목(예: 금융을 이용한 수학문제)하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금융을 접하도록 유도

* 미국, 영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교과목間 연계된 문제들을 벤치마킹하고 국내 금융교육 여건에 맞도록 교과내용, 시험문제 등 정비 추진

○ 교육부와 협업하여 창의적 체험활동*에 '금융활동'을 포함시키고, '1사 1교' 등을 활용하여 학교 내 금융 관련 동아리 적극 지원**

* 자율활동, 동아리활동, 봉사활동, 진로활동으로 구성(교육부 고시)

** 예시) 동아리 성격에 맞는 교재 배포, 찾아가는 금융교육 서비스, 체험형 교육 연계 등

- 금감원 초·중·고교 '생활금융' 교재를 적극 활용하고,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교육의 효과 제고

※ 금감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재(표준안)를 '경제교육 연구학교'((초) 10교, (중) 8교, (고) 6교)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·홍보

○ 중학교 자유학기제* 운영 모범사례로 일선 학교에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전파

* 한 학기동안 시험 없이 다양한 체험활동 중심 교육과정 운영('16년~)

※ '15년 교육과정 개편 주요내용(예시 : 고등학교, '18년부터 적용)

- 통합 사회 : (기존) 신규과목 → (개선) 생애 금융 설계, 자산관리 원칙 등 포함
- 기술 가정 : (기존) 소비생활 등 → (개선) 재무 설계 관련 내용 추가
- 실용 경제 : (기존) 자기 책임 원칙, 신용 관리, 예금자 보호 제도 등 → (개선) 금융소비자 보호제도, 연금 관련 내용 추가
- 경제 수학 : (기존) 신규과목 → (개선) 연금, 이자율, 소득, 할인을 등 포함

□ 대학교 교양과목 등에 금융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추진

○ 특히, 교육대학, 사범대학 등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편성·운영 시 금융교육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

□ '1사 1교 금융교육' 등 금융회사와 학교 간 연계 강화

- 금융회사(본·지점)와 학교 상호간 자매결연을 적극 유도하여 지속적(한 학기당 최소한 2회(4시간) 이상)으로 금융교육 실시
 - * '14년말 기준 전국의 초·중·고교는 약 11,446개, 금융회사 본·지점은 약 23,720개
- 금융회사 직원이 자매결연 학교를 방문하여 사례중심 교육 실시 하고, 학생들을 금융회사 점포로 초청하여 체험교육 등 실시

※ '1사 1교' 교육 내용

- 금융회사는 학생들에게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, 건전한 금융생활·습관 함양, 금융거래의 기초상식 등을 교육
- 교재와 강의안은 금감원에서 추천*하는 것을 참고하여 결연 금융회사와 학교가 협의하여 결정
 - * 금감원 생활금융 교재·강의안, KB금융공익재단 교재·강의안, YWCA 씽크머니 금융교실, 삼성증권 경제아카데미 등(금감원 홈페이지 게시)
- 금융교육 질적 제고를 위해 강의기법, 추천 교재·강의안 소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사 연수를 월별(10-11월), 지역별로 실시

- 향후에도 '1사 1교' 금융교육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내실화 방안*을 다각적으로 추진

- * ❶ 금융교육 교재 보완 및 추가 개발, ❷ 우수 금융교육사례 선정·전파, 포상, ❸ 지역별 학교장 간담회 개최, ❹ 설문조사 실시, ❺ 학기별 성과 분석 등

- 특강 형식으로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가정 내에서도 현명한 금융생활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

- * 예시)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세뱃돈을 활용하여 은행계좌 개설, 소액 주식 투자 등 금융활동을 경험하도록 유도

- 대학교 입주 금융회사 지점이 대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하거나 금융동아리 등과 연계하여 캠페인 실시

- * 예시) 지점 내 금융 관련 공간(카페 등) 설치, 금융동아리와 연계하여 금융교육 및 교내 금융알리기 캠페인 실시

※ 각급 학교 홈페이지와 금감원 금융교육 홈페이지 연계도 추진

다 체험형 교육 등 '재미있는 금융' 교육 확대

□ 게임, 연극, 뮤지컬, 퀴즈 등 흥미중심의 체험형 교육 대폭 확대

- * 금감원 홈페이지 상의 금융교육 애니메이션의 평균 조회수는 5,364회로서 같은 기간 게시된 금융교육 교재 파일의 평균 조회수(748회)를 훨씬 상회

○ 체험관, 금융캠프 등 체험공간을 현행 대비 2배 수준 대폭 확대

- 금융협회·회사 등을 중심으로 금융체험관(3D 영상관, 전시홍보관, 체험학습관 등으로 구성) 설치를 확대

- * (현행) 금융체험관 운영 12개사, 금융캠프 운영 8개사
→ (개선안) 금융체험관 운영 20개사, 금융캠프 운영 15개사

- * 금감원 '청소년 금융교실' 운영 횟수 확대
(현행) 연 8회, 320명 → (개선안) 연 20회 800명 대상)

- 전 업권 및 금융사 전체를 경험할 수 있는 '종합금융 체험관(가칭)'을 금융협회 공동으로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

- * 종합직업체험관의 경우 성남시에 4층 규모로 설립·운영 중

○ 교육실시기관의 교육 콘텐츠도 체험형 중심으로 대대적 개편

- * (현행) 체험형 교육은 전체의 약 20%(뮤지컬 4개, 보드게임 10여개 등)
→ (개선안) 전체의 약 50% 수준 확대(뮤지컬 10여개, 보드게임 20여개 등)

※ 체험형 교육 사례(예시)

- 학교 내 실제 금융회사 영업점(은행, 보험, 증권 등) 설치 후 학생이 직접 운영하고, 계좌 개설, 대출, 주식거래 등 금융 업무를 체험
- * 버스(시중 금융회사 버스 등 활용)에 가상은행을 설치하여 찾아가는 체험서비스도 제공
- * 미국 일부주는 학교와 금융회사가 파트너 관계를 형성하여 학생들이 운영하는 교내은행을 설치하여 실제 은행업무 등을 직접 체험

□ '금융의 달'(가칭, 10월) 지정, 경진대회·공모전 개최 등을 통해 금융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금융이해력을 제고

* 금감원, 금융협회 등과 공동으로 금융관련 교육·홍보(캠페인)·행사 등을 전국 규모로 집중 실시

○ 체험수기* 공모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책자로 제작하여 각 급 학교에 배포하고, 성인 및 취약계층 교육 자료로 활용

* 자산형성, 노후대책 마련 등 금융활동을 통해 실질적 이득을 본 사례 중심

라 강사인증제 등 공급역량 강화 및 교육 전달체계 다양화

□ (공급역량 강화) 금융교육 「강사인증제(금감원)」를 도입하고, 체계적인 연수제도*를 마련하는 등 전문강사를 대폭 확대**

* 집중 연수(5일, 30시간 이상), 1일 연수(월1회, 1개 과정은 1일 연수 5회)

** (현행) 85명('14년) → (개선안) 150명('16년) → 300명('20년)

※ 전문 금융교육강사 현황

- '14년말 기준 금융교육 강사는 총 1,743명이나, 전문강사는 85명에 불과
- 전문강사 분포(명): 금감원 19, 청교협 32, 거래소 9, 전체 금융회사 16

○ 강사 수준에 따른 수준별 인증제(예: 초급/우수/전문)를 도입하여 다양한 유형의 강사단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

○ 초·중·고교 교사 대상 연수 기관·횟수* 등을 확대

- 학교 금융교육 담당 교사(지리 등 사회 관련)에 대한 금융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부 등과 협의

* (현행) 서울지역 연 160명 → (개선안) 연 680명('15년, 5대 도시(대전, 대구, 광주, 부산, 강원) 추가) → 연 880명('16년~, 서울 및 5대도시)

○ 금융회사 퇴직 임·직원,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강사로 적극 활용하여 금융교육의 효과 제고

- 초·중·고교 퇴직교사도 학교교육 전문강사로 활용

○ 효율적인 강사진 관리를 위해 교육기관 전체 강사진 DB도 집중하여 관리하며 강사 연수 커리큘럼*도 강화

* 예시) 강의안 작성 기법, 강의 기법, 교재 활용법

※ 금융연수원, 사이버대학 등과 MOU를 체결하여 금융교육 강사과정을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

□ (전달체계 다양화) 인터넷·모바일 매체 등 다양한 전달체계를 통해 수요자의 교육채널 선택권 강화

○ 사용자의 능동적인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금감원의 '금융 교육 홈페이지' 화면구성·콘텐츠를 이용자 중심·쌍방향으로 개편

- 금융교육 관련 모든 콘텐츠도 DB화하여 소비자 편의성 제고

○ 기존 교육 어플리케이션(예: YWCA 썬크머니)과의 연계 등을 통해 스마트폰용 금융교육 어플리케이션도 무료로 제공

* 멀티미디어 자료, 스마트폰 게임 등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

※ 금감원 홈페이지 개편(안)

- (학습관리) 회원별 학습이력을 관리
- (맞춤강의) 테스트 결과에 따른 수준단계별 맞춤 강의 제공
- (콘텐츠 보강) 대학생, 성인 대상 이러닝 콘텐츠 개발(초등학생용('14.3월), 중학생용('15.2월), 고등학생용('15.10월) 기 개발)
- (인센티브) 단계별 교육(동영상 + 사이버) 이수시 테스트를 거쳐 수료증 및 소정의 상품 제공
- (DB) 금융교육 관련 모든 DB 사용이 용이하도록 소비자중심의 화면 구현

마 인터넷 등 대중매체와 캠페인을 활용한 교육홍보

□ 네이버, 다음 등 온라인 유명 포털사이트를 활용하여 웹툰*을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·전파

* 기존 금융관련 뮤지컬 시나리오를 활용하거나, 대상을 세분화(초/중/고/성인 구분)하여 맞춤형 웹툰 제작

○ 금융관련 드라마 시나리오 등을 제작하여 방송국(PD 등) 배포 추진

○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 UCC, 글짓기 등을 유튜브를 포함한 소셜미디어에 적극 게재

○ 포털사이트에서 금융관련 검색을 용이하게 하고 콘텐츠도 보강

* 금융관련 주요 키워드가 검색어 상위에 위치하도록 포털사이트와 협의

** 알고 싶은 개념을 쉽게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주는 동영상 제작·게재

□ (공익)광고, 유명 TV프로그램(드라마, 예능 등), 영화 등과 금융교육 콘텐츠를 접목

* 예시: 금융사기 관련 금감원의 영화 '함정'과 캠페인 연계, 드라마 '아름다운 나의 신부' 후원

□ 금융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업권의 특성에 맞춰 금융교육 관련 캠페인 공동 추진

※ 캠페인(예시)

- (은행) 1자녀 1통장 개설하기(세벳돈 활용 등), 용돈기입장 사용하기
- (금투) 청소년 소액주주 되기, 1인 1펀드 가입하기
- (카드) 대학생 체크카드 사용하기
- (보험) 자녀 실손보험 가입하기

3 추진체계 정비

가 민간부문의 금융교육 역할 확대 등을 통한 민관 협력 강화

□ 금융당국과 민간부문 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, 민간 역할 확대·협업을 강화하여 금융교육의 효과성을 제고

○ 금융당국은 국가전략 등을 통한 정책방향 수립, 민간부문은 그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, 실제 교육실시 등으로 역할 분담

- “우수 교육프로그램” 시상*을 확대하고, 인증마크(quality mark) 부여 및 ‘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’시 우수회사 가점 반영 검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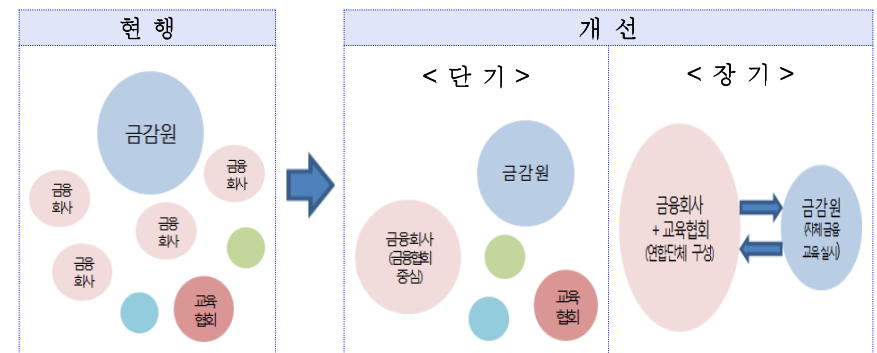
* 교재, 교육사례, 온라인 학습자료, 체험관 등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평가

○ 협회중심으로 민간부문의 금융교육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, 금융교육 기관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한 중복·사각지대 방지 등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 실시

※ 금감원과 금융협회의 금융교육협의회 보좌 기능을 강화, 특히 은행권의 금융교육 조정·강화를 위해 은행연합회의 금융교육 업무 강화 추진

- 중·장기적으로 민간협회 주도의 연합단체를 통해 인력, 콘텐츠, 예산 등 금융교육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

< 금융교육 실무 체계 >



나 금융교육협의회 확대개편 및 지역네트워크 확대기능강화

□ 금융교육협의회가 금융교육에 대한 범정부적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도록 위원구성 확대 및 기능 강화(금소법에 既 반영)

○ (구성) 관련 정부 부처 및 학계 참여 확대(기관은 당연직, 학계는 위촉직)

* 향후 대학생·직장인·은퇴자 금융교육협의회 등 설립을 유도하여 구성 확대 추진

< 금융교육협의회 구성(안) >

	현행		추가		변경후 명수
	명수	기관명	명수	기관명	
정부	1	금융위(의장)	6	기재부, 행자부, 노동부 교육부, 복지부, 여가부	7
공공기관 등	3	금감원, 예보, 신복위	0	-	3
금융 협회	7	은행·금투·생보·손보· 여신협회, 저축은행 중앙회, 신탁 중앙회	0	-	7
교육 기관	3	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한국투자자보호재단 등	0	-	3
학계	0	-	2	금융교육 관련 연구자	2
시민단체	0	-	2	YWCA 등 2곳	2
계	14	-	10		24

○ (기능) 금융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금융교육 국가전략 및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기관 간 역할을 조율*하는 등 금융교육 전반 총괄

* 금융교육 실시기관 상호간 정보(신규 수요발굴, 중복사업 정비 등)도 교류

- 원활한 금융교육정책 실행을 위해서 기재부, 금융위, 금감원 등은 예산확보 적극 추진 및 연계교육 활성화

○ (운영) 반기 1회 회의 원칙

- 금융교육 관련 정책추진 및 조율을 위한 실무추진단(단장: 금융위 중소국장)을 구성하고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(예: 월1회 개최)

◆ 금융교육 국가전략 계획(안)

○ (발표) 정기적(예: 2년)으로 금융소비자 역량조사를 실시한 후 금융교육협의회를 거쳐 발표

○ (내용) 금융교육 우선순위를 설정(비전/미션/세부실행방안으로 구분)하여 일정기간(예: 2년) 동안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

* 해외 국가전략 수립 사례 등을 참고하여 수립('15년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'16년 1/4분기 금융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할 계획)

○ (추진체계) 금융교육협의회에서 마련한 국가전략·연간계획을 토대로,
- 지역협의회는 세부실행방안 및 지자체에 특화된 교육방향을 마련하여 매년 금융교육협의회에 보고

※ 국가전략 마련 등 국내의 금융교육 강화 노력을 OECD 등 국제기구를 통해 적극 홍보 (→ 국제적 금융교육 추세와 교류할 필요)

□ 지방과 수도권간 금융격차를 해소하고 금융교육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방 거점을 중심으로 금융교육을 강화

* 금감원 '전국민 금융이해력조사('14년 말)' 결과 군·읍·면 거주민의 금융이해력이 대도시 대비 상대적 열위(대도시 65.8, 중소도시 67.7, 군지역 62.7)

○ (설치구성) '금융교육 지역협의회'를 대폭 확대(예: 6개 → 10개)

* (현행) 금감원지원 중심 6개소 → (개선) 금감원 사무소 추가 활용한 10개소

- 금감원 지원·사무소, 지자체, 교육청, 지방대학, 금융공공기관 지부(신복위 등), 지역 금융회사뿐 아니라 교육·소비자단체 지부도 포함하여 협업을 강화

- 행자부, 교육부 등 관련부처는 지자체, 지방교육청 등의 적극 참여 협조를 추진

○ (기능) ① 지역별 금융교육정책 방향 설정 ② 연간 운영계획(교육, 행사, 홍보 등) 및 실적 보고 ③ 지역별 금융회사 강사 pool 관리 및 지자체 금융교육 수요 발굴 ④ 찾아가는 금융교육 서비스 제공

IV. 향후 일정

☐ 실무 추진단을 구성(10월 말)하여 강화방안 세부과제 신속히 추진

※ 금융협회·회사, 금감원 공동으로 추진단을 구성하여 **재원·방식·인센티브** 등 검토

☐ 금융교육 국가전략 마련('16년 1/4분기)

☐ 세부 추진일정(안)

실천 과제 및 추진체계 정비	담당기관	일정
1. 생애주기, 취약계층 별 맞춤형 교육 강화		
<input type="checkbox"/> '맞춤형 평생금융교육' 추진		
○ 초·중·고교 표준안 정비	금감원	'16/4분기
○ 생애주기별 표준안 지속 개정	금감원	계속
○ 표준안에 따라 교재 정비	금감원	계속
○ 경제·직장·학교 교육 시 금융교육 강화	가계부, 교육부, 교육부, 금감원	'16년
○ 표준안 및 교재 배포범위 확대	금감원	계속
<input type="checkbox"/> 취약계층 집중교육		
○ 취약계층별 교재개발	금감원	'16/4분기
○ 교육 실시기관·컨텐츠 확대	금융교육기관(협회 포함)	계속
○ 복지회관, 다문화가족센터 등 연계	금감원, 복지부, 여가부	'16년
○ 사회복지사, 통번역 지원사 금융특강 편성	금감원	추진중
2. 학교 교육 강화		
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과정 개편 추진		
○ 필수 교과목과 금융 접목	금융위, 교육부, 금융협회	계속
○ 교과과정 내 금융내용 확대	금융위, 금감원, 교육부	추진중
○ 중학교 자유학기제 활용 금융교육 확대	금감원, 교육부	'16/4분기
<input type="checkbox"/> 대학 교양과목 등에 금융관련 내용 반영	금융위, 금감원, 교육부, 한국대학교육협의회	계속
<input type="checkbox"/> '1사 1교' 등 금융회사와 학교 간 연계 강화		
○ '1사 1교' 지속 확대	금감원	추진중
○ 학부모 교육 실시	금융교육기관(협회 포함)	'16년
○ 대학교 입주 금융회사 지점과 대학 간 연계	금융협회, 금융회사	'16년
○ 금감원 금융교육 홈페이지와 학교 간 연계	금감원, 교육청	'16년

실천 과제 및 추진체계 정비	담당기관	일정
3. 체험형 교육 등 '재미있는 금융' 교육 확대		
<input type="checkbox"/> 흥미중심의 체험형 교육 확대		
○ 금융체험관, 금융캠프 등 체험공간 확대	금융교육기관(회사 포함)	'16년
○ '종합 금융체험관' 설립	금융교육기관(회사 포함)	중·장기
○ 교육 콘텐츠를 체험 중심으로 개편	금융교육기관(회사 포함)	'16년
<input type="checkbox"/> 금융 이벤트 등을 통한 관심도 제고		
○ 금융의 달 지정 및 경진대회 개최	금융위, 금감원, 금융협회	'16/4분기
○ 체험수기 공모 및 책자 제작·배포·활용	금감원	'16/4분기
4. 공급역량 강화 및 교육 전달체계 다양화		
<input type="checkbox"/> 금융교육 공급역량 강화		
○ 강사인증제 도입	금감원	추진중
○ 체계적인 연수제도 마련	금감원	'15/4분기
○ 초·중·고교 교사 연수 확대	금감원	추진중
○ 퇴직교사, 금융회사 퇴직자 등 강사 활용	금융교육기관(회사 포함)	계속
○ 금융교육 강사진 DB 구축	금감원	'16/4분기
<input type="checkbox"/> 금융교육 전달체계 다양화		
○ 금감원 홈페이지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	금감원	'16/4분기
○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연계	금감원	'16/4분기
5. 대중매체, 캠페인 활용 교육 홍보		
<input type="checkbox"/> 포털 등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·전파		
○ 금융관련 드라마 시나리오 제작·배포	금감원, 금융협회	'16/4분기
○ 우수 UCC, 글짓기 소셜미디어 게재	금감원, 금융협회	'16/4분기
○ 포털사이트 내 금융검색 간편화	금감원, 금융협회	계속
<input type="checkbox"/> TV 프로그램과 금융교육 콘텐츠 접목	금융협회	중·장기
<input type="checkbox"/> 금융교육 캠페인 추진	금융협회	'16년
6. 민간부문 역할 확대 등 민관협력 강화		
<input type="checkbox"/> 금융당국과 민간 간 역할 분담		
○ 금융교육 국가 전략 마련	금융위	'16.1/4분기
○ 우수교육프로그램 인센티브 부여	금감원	중·장기
<input type="checkbox"/> 금융협회의 금융교육 역할 강화	금융위, 금융협회	계속
7. 체계적인 금융교육 시스템 구축		
<input type="checkbox"/> 금융교육협의회 확대·개편	금융위	'15/4분기
<input type="checkbox"/> 지역협의회 확대 및 기능 강화	금감원	'16/4분기

- (금융위) 매년 금융교육협의회*를 통해 당해년도 금융교육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등 금융교육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

* 금융위, 금감원, 은행연합회,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등 14개 기관('10.1월~)
 * '15.1월 금융교육협의회를 통해 '15년 중 청소년·취약계층을 대상 금융교육을 중점 추진하고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을 확충하기로 결정

- 소비자가 금융교육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 강화

- 추진방향을 토대로 금감원, 금융회사, 금융교육협회 등 다양한 기관(71개)에서 금융교육을 실시

- (금감원) 금융교재개발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금융교육 인프라 구축뿐 아니라 일부 금융교육 직접수행

※ 주요내용

- (학교금융교육) 금융교육 시범학교, 교사연수, 교재개발 등
- (인센티브제공) 청소년 금융백일장, 금융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등
- (취약계층교육) 금융사랑방 버스 등을 활용하여 방문교육

- (교육기관) 금융교육전문기관, 금융협회·금융회사 등이 교육 실시

※ 주요기관 교육내용

- ①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: 초·중·고교 방문교육, 교사연수, 금융캠프, 금융교육 뮤지컬, 체험형 금융교육용 게임 제작·보급 등
- ② 투자자교육협의회 : 금융투자체험관, 투자자교육 사이트·모바일 앱, 성인 생애자산관리교육, 청소년 금융교실, 교사연수 등 운영
- ③ 금융협회·금융회사 : 금융교실, 금융캠프, 온라인 금융교육사이트, 금융박물관, 금융교육 뮤지컬, 교사연수 등